

---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향후 전망**

---

2014년 10월

**kotra**

베이징무역관

## [요 약]

### □ 사업명

- KOTRA-매일경제 공동기획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전망”

### □ 추진 배경

- 3분기 GDP 발표 직후 중국 현지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를 통한 최근 중국 경제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 한·중 양국 간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방안 논의

### □ 좌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4. 10. 21.(화) / 베이징무역관 대회의실
- 중국측 참석자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 참석자 프로필 참조)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쑤쉐궁(孫學工) 부소장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송즈용(宋志勇) 소장
  -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류루이(劉瑞) 부원장 등
- 주요 논의 내용
  - 최근 중국경제 진단 및 주요 이슈 분석
  - 중국정부의 거시정책 방향 및 향후 전망
  - 한·중 협력강화 방안 논의 및 마무리 제언

I

**좌담회 참가 중국 경제학자 프로필**

□ **쑨쉐궁(孫學工):** 現 국가발전개발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소장



\*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약력
  - 주EU중국대사관 1등비서, 연구실 주임 역임
- 주요 연구 성과
  - 동아시아 안정과 경제사회발전
  - 2000~2001 거시경제동향분석
  - 중국 도농 간 소비구조의 변화 추세

□ **송즈용(宋志勇):** 現 상무부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장



\* 동북사범대 졸업  
(세계경제 전공)

- 주요 약력
  - 2012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근무
  - 2008년 주일(駐日)중국대사관 경상처 근무
- 주요 연구 성과
  - 중·일 경제 무역 관계 강화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관한 대책
  - 과학기술로 무역을 진흥하는 전략보고(2004)

□ **류루이(劉瑞):** 現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



\* 인민대 졸업  
(경제학 박사)

- 주요 약력
  - 1996년 국민경제관리학과 부주임 겸 사회발전관리연구소장
  - 2002년 인민대학 발전기획처 부처장
  - 2003년 국민경제관리학과 주임
- 주요 연구 성과
  - 사회경제발전전략과 기획: 이론, 실천, 사례
  - 정부경제관리 행위 분석
  - 중국경제 발전모델 전환과 정형(定型)

## II

## 좌담회 회의록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주요 이슈>

### ① 중국 '14년 3분기 GDP가 발표됐다.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좌담회 개최 당일 국가통계국 발표]



☞ **쑤쉐공(孫學工)**: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2분기 대비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봄. 단기적 요인으로는 올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월대비 **2.1% 포인트 하락(\*\*)**하면서 영향을 주었고, 기술적 요소로는 '13년 3분기 높은 실적(7.8%)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장기적 요인으로는 소비, 수출의 안정세에 비해 많이 부진한 '투자' 실적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인프라 투자 축소**에 따른 부지 양도 수익 감소 등도 성장률 둔화의 원인 중 하나임.

[참고(\*)] 3분기 경제성장률은 7.3%로 시장예상치인 7.2%를 상회했으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분기별 GDP 증가율(%): 1Q 7.4% → 2Q 7.5% → **3Q 7.3%**

\*\* 산업생산 증가율은 9월 8%로 전월 6.9%보다 개선되었으나 전월 실적 부진에 따른 반등으로 지속 여부는 불투명

.산업생산 증가율(%): 6월 9.2% → 7월 9.0% → **8월 6.9%** → 9월 8.0%



☞ **류루이(劉瑞)**: 경기둔화 요인으로 '부동산'을 꼽을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중국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임. 부동산 외에도 '제조업' 위축 또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참고] 중국정부가 기존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대부분 도시에서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지표는 둔화세

. 9월말 기준 주요 10개 부동산개발업체의 토지구매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50% 가까이 감소해 1,595억 위안을 기록

## 중국 경제 최대 위협요인이 부동산이란 분석에 동의하는가?



☞ **쑤쉐궁(孫學工):** 부동산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적인 영향은 건축자재, 철강, 가전제품, 인테리어자재 등 산업사슬과 지방정부의 토지양도 수입 등을 포함함. 부동산 시장 불황이 중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1% 포인트로 추정하고 있는데 '1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반기 대비 6~7%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중국 특성상 **부동산 시장 하락이 경제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처럼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② 서구에서는 중국 그림자금융 및 지방정부 부채과다 문제를 중국경제 리스크로 꼽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정책은?



☞ **류루이(劉瑞):** 중국 그림자금융은 중국시장에서 아직 완전한 금리 시장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측면이 큼. 현재 중국은 대출금리는 개방했으나 예금금리는 개방하지 않은 상황임. 지방정부의 채무 현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가 융자플랫폼을 통해 대규모 융자를 형성하면서 초래된 결과임. 2012년부터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의 과다부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비를 시작해가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올해 안으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이 허가될 예정이라 긍정적으로 봄. 그러나 매년 지방정부가 3천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황임. 지방정부 부채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림자금융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러 관련 기관에서 통계집계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림자금융의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사실 쉽지도 않고 기관마다 발표된 수치가 다르다.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 류루이(劉瑞):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파악해야 문제 예측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임. 현재 국유은행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정확한 분석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송즈용(宋志勇): 지방정부는 주로 토지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부채가 증가하면서 토지매각 수익 또한 감소하다보니 지방정부의 과다부채가 아주 심각한 상황임. 중국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금융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했기에 지방부채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임.


[참고] 정부의 토지매각수익은 지난 7월 한 자리수 증가에 그친 후 9월에는 감소세를 기록한바 있음. 한편 '13년 중국 정부의 토지매각수익은 4.1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45.0% 증가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함. '14년 1~3분기 토지매각 수입은 3.1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 연말까지 총 4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쑤쉐궁(孫學工): 지방정부 부채가 과다한 수준이라고만 볼 수 없음.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지 심각한 상황은 아님.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고, EU 90% 이상, 일본 200% 이상인 것과 비교 해봐도 중국은 40% 수준에 그침. 과다 부채라기 보다 부채 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임(지난 2년간 연평균 20% 속도로 성장). 미국이

	<p>나 EU의 경우 소비형 부채인 반면 중국은 '투자형'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의 성격이 강함. 은행 채테크 상품(理財; 리차이)은 부동산과 많이 연관돼 있어 그림자금융 역시 부동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리차이 상품은 은행 대차대조표 상에 남지 않는 장부외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 및 사회 안정성에 영향이 있을 뿐 금융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봄.</p>
--	---

<향후 중국정부의 거시정책 전망>

<p><b>③ 중국인민은행이 경제성장을 회복을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이나 기준금리 인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가? 그 조절시기나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가?</b></p>	
	<p>☞ <b>쑤쉐궁(孫學工):</b> 중국이 높은 지급준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역흑자로 인해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 무역구조가 부단히 변경되고 있고 무역흑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b>조만간 지급준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b> 중국 정부는 용자원가가 높은 것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조치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기타 금리도 인하하고 있음. <b>인민은행의 화폐시장 공개조작 역시 금리를 낮추는 조치라 할 수 있음.</b>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없겠지만 필요한 경우 조정할 여지는 있음.</p> <p>[참고] 중국 정책당국은 시중 단기금리 안정을 통한 신뢰성 있는 금융시장을 유지해가기 위해 '신중하고 완만한 통화정책' 기초를 유지하며 경기둔화에 대비한 선택적 부양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인민은행은 미니부양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0일 환매 조건부채권(RP) 금리를 0.20%p 낮은 3.50%로 인하한데 이어 10월 14일에는 14일물 RP 금리를 0.10%p 낮은 3.40%로 추가 인하</p>



☞ 류루이(劉瑞): 중국 지방은행의 높은 운영원가 탓에 대출원가가 높아짐. 악성부채의 축적과 낮은 은행효율성이 지금의 금리원가 형성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문제는 은행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할 것임.

[참고]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중국 5대 국유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1천억 위안, 총 5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바 있으며, 10월에는 유동성지원창구, 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간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13년 도입)를 통해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상업은행들에게 공급('14.10.19일)한다고 밝힌 바 있음.

#### ④ 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과 올해 전체 GDP를 전망한다면? 정부 목표치인 7.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쑨쉐궁(孫學工): 4분기 경제성장률은 7.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음. 다만 4분기 수출실적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함. 수출경기가 좋아진다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4분기 경제성장률은 7.4%로 예상되며 이 경우 2014년 전체 GDP 증가율은 7.4%가 될 것임.

[참고] 최근 중국 수출입 동향: '14년 9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8월 9.4%)했고, 수입은 7.0%를 기록(8월  $\Delta$ 2.4%)함. 수출 두 자리수 증가는 아이폰6 출시 영향에 따른 가공 재수출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다만 기대보다 더딘 수입 실적은 향후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주목해야 할 변수



## 과거에 비해 부동산, 수출의 중국경제성장 기여도가 많이 약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전망은?



☞ **송즈용(宋志勇)**: 경제성장은 주로 투자, 수출, 소비 등 3개 요소로 구성되는데 중국은 그동안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음.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인 작용이 크긴 하지만 대외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음. 중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기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외부환경이 큰 변화가 없다면 수출도 안정적인 것이나 이전의 대폭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노동력 원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대 중국 투자 폭도 완화되는 추세로 기존 중국에 있던 생산 공장을 동남아 등 타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런 복합 요인들이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 **류루이(劉瑞)**: 이제 중국정부는 더 이상 경제성장률 숫자 목표에 연연해하지 않음. 올해 GDP 증가율이 7.2~7.4%로 당초 목표치(7.5%)보다 낮아진다고 해도 이는 정책당국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대규모 부양조치는 없을 것임. 그러나 만약 정책당국이 예상하는 하한선을 넘어 성장률이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경기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임. 일례로 올해 정부가 추진한 고속철도 구축 가속화, 판자촌 개조, 영세기업 감세정책 등을 들 수 있음. 다만 수출입의 경우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 대외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출입 자극을 위한 조치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 중국 발개위는 10월 이후 총 2천억 위안(약 35조원) 규모의 철도투자를 승인한바 있음. 철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지원정책이 실시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연간 철도 부문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20.0% 증가한 8천억 위안에 달함. 그 중 철도 인프라 투자는 18.2% 증가해 6천3백억 위안을 기록함.

**4분기 경제성장 속도가 7.2%보다 떨어질 경우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이 쏟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기준금리 하향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보는가?**



☞ 류루이(劉瑞): 은행 시스템 조정을 통해 경제를 자극하는 것은 중국에서 효과가 썩 크지는 않음. 은행의 전도역할이 성숙된 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금융기구의 역할을 통해 경기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의 유동성은 대체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투자정책 변화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⑤ 중국정부가 수출,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소비 주도형 경제로 경제체질을 바꾸려고 하지만 여전히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쑨쉐궁(孫學工): 중국의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물론 올해 중국 소비시장은 부정부패정책 등 단기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고급 요식업 등 일부 소비가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의 성장속도가 확연함. 경제구조를 볼 때 향후에도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출과 투자는 하락될 것임. 사회복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완비되고 소비자권의 강화 등 소비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물론 이러한 개선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비 화될 것임.

[참고] 최근 중국의 소비, 투자, 생산 실적: '14년 9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1.6%(8월 11.9%),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6.1%(8월 16.5%), 산업생산은 8.0%(8월 6.9%)를 기록함.

**⑥ 많은 서구 전문가들이 세계경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중국 경제 둔화 혹은 경착륙 가능성을 꼽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는가?**



☞ **송즈용(宋志勇):**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경제구조조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중국정부가 과잉생산 철폐를 추진하면서 시멘트, 철강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자 철강 가격이 톤당 8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침. 세계 광물가격 하락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때문이 아닌 중국의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⑦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제 개혁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쑤쉐궁(孫學工):** 중국정부는 2013년 10월 제18기 3중 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선언했고 이와 관련 그동안 이미 300여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음. 대표적으로 행정간소화(주로 행정심사허가권을 이관하거나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 재정·세무 개혁, 금융개혁 등을 꼽을 수 있음. 금융개혁은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유화, 민영자본에 대한 개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개혁(혼합소유제 추진)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시진핑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방면에 걸친 국가 시스템 개혁을 강조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개혁심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특히 지난 3중전회를 통해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환경, 정부 등 6개 영역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속 마련 중임. 2015년에는 이러한 영역별 개혁 세부 가이드라인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세제(부동산/소비/환경/자원세 등), 국유기업, 예산법 등 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⑧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타결 후 양국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송즈용(宋志勇):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 지난 7월 대구에서 진행된 제12차 협상은 한국이 충분한 준비를 했고 9월 22일 북경에서 진행한 제13차 협상에서는 중국이 충분한 준비를 해 많은 진전을 가져왔음.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FTA는 반드시 쌍방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야 협상 가치가 있다는 것임. 중국정부에서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국이 더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중국도 bottom line이 있고 협상은 반드시 윈-윈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한국이 57~58%, 중국이 43~42% 수준에서의 타결은 가능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함. 한국은 농업, 중국은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음. 양국의 발전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함. 중국시장이 크다고 무조건 중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임.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우선 한국의 대중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대중수출에 있어 한국은 일본과의 경쟁도가 높는데 FTA 타결로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의 대중수출이 일본에 비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됨. 그 밖에도 중국 노동력 원가가 한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으로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FTA는 양국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전제조건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임.



☞ 류루이(劉瑞): 한·중 FTA 타결 관련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술적 문제가 존재함. 예를 들어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한국 세관에서 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한 예는 중국인이 한국 비자를 받는 것이 아주 까다롭다는 것임.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한·중 어선문제를 꼽을 수 있음. 이는 2005년 체결한 ‘어업협정’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 수역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 중국 어선이 이를 조금만 넘어서도 양국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임. 이런 문제는 FTA 협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국 관계를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은 경우 민간 대립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⑨ 한국에서는 차이나리스크를 걱정하며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점점 사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송즈용(宋志勇): 개혁개방 시점에서 중국이 외국기업에 너무 많은 혜택정책을 실시했고 지금은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이해해야 함. 중국이 초창기에 돈도 없고 기술도 없어 외국기업에 대해 초(超)국민대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자국기업 이익에 반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취소하고 있을 뿐임.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나라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에 투자하는 주요 목적은 시장 규모를 보고 투자하는 것임.

## 최근 반독점 조치들이 외국기업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 송즈용(宋志勇): 우선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업무수요에 따라 진행된 것임. 반독점에 있어 중점은 종향독점이지 횡향독점은 아님. 종향독점은 증거수집이 쉽지만 횡향독점은 증거수집이 어려움. 사실 반독점 조치 대상은 중국의 국유기업이 먼저였음. 중국의 마오타이(茅台), 우량액(五糧液) 등 로컬 술 생산 기업으로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또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율할 가능성이 큼. 이 조치를 통해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이 변화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임.

[참고] 지난 8월 중국 발개위 반독점국은 스미토모 등 8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와 니혼세이커 등 4개 베어링업체에 대한 독점혐의를 확정, 총 12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바 있음.



☞ 류루이(劉瑞): 중국 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정상궤도에 들어섰다고 봐야할 것임. 내국민대우는 한국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불리함. 많은 외국기업에서 직원 사회보험 강제납부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원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임.



☞ 쑤쉐궁(孫學工): 중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심사제도, 등록제도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⑩ 한중 FTA를 비롯해 앞으로 양국의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조언을 한다면?**



☞ 송즈용(宋志勇): 한·중 수교 3년째(1992년)부터 중국의 대한 무역은 줄곧 적자였는데 2013년에는 9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를 초과함.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였을 때 미국의 반발이 아주 컸는데, 지금 한국의 대중 수출 흑자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없지만 여러 질의의 목소리는 존재함.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시기 대한 무역적자가 큰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재 경제 성장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니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 올 연말 FTA가 타결되면 대중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할 것임.



☞ 류루이(劉瑞):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과 비교 시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음. 한국 기업이 현지화를 잘 추진하고 있고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한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을 초월했기 때문에 기술혁신 분야에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임. 한국의 미용, 성형 서비스의 경우 중국 여성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비자문제 등 요인으로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임.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을 찾으려면 프리미엄 한계를 타파하기보다는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를 발굴, 공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기업이 최첨단 기술을 중국시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면 중국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임. 한 대만기업은 전해질을 분해해 산소와 수소를 생성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양산하지 않고

중국 장수 화이안(江蘇淮安)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설립, 동북진출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임. 물론 실패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임. 심천(深圳)에 대만기업이 많았는데 토지사용계약 시 50년을 체결했지만 현재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공장 부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음.

### III 좌담회 개최 관련 언론보도

## 매일경제 A01, A03면 (2014.10.23, 목)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A01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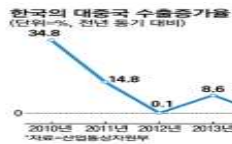
# 중시장 변화무쌍한 레드오션 한국, 최고기술 아니면 必敗

차이나리스크 비상... 중국 전문가들의 조언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이 아니라 ‘혁신’으로 승부하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차이나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혁신’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A3·13면

중국 경제 정책 검토를 마친 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산하 경제연구소의 손예중(孫學忠) 부소장은 지난 21일 매일경제와 **좌담회**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중국 사모기의 성공은 창성이냐·예측의 정확도 안 되는 가격으로 경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소장은 “중국 소비시장이 커 대만이라고 하지만 과잉기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레드오션”이라며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혁신적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내지 않으면 누구도 중국 시장에서 영연히 할 나팔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어프리카연구소의 쑹즈훙(宋志鴻) 소장은 이와 관련해



“혁신은 시장의 변화를 따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세계에서 변화가 가장 빠른 중국 시장에서 앞서 가려면 현지 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R&D)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중국 기업은 선진국에 맞먹는 R&D 투자 비중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만기업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푸이(鄒湄)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은 “대만 기업들은 가장 좋은 기술을 중국으로 갖고 올

어오는 반면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가장 좋은 기술은 자국에 두고 그보다 못한 기술로 중국에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한국 기업이 대만처럼 최고의 기술을 선진국으로 중국으로 갖고 들어온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 공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반응 대량생산 제품으로는 더이상 중국산 상품과 경쟁할 수 없다”며 “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만이 경쟁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량생산과 저가 공세로 쫓아올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를 갈라는 주문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중국 증산율을 감안하면 그다음 다음을 앞둔다고 삼들 향상시켜주는 상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여기에 한국의 문화코드와 스토리를 입히면 금상첨화”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런 화성들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식품은 한국 시장 진출과 동시에 유커들까지 끌어들이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이정/정혁은 특목민·서울 이호승 기자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A03면 종합

# 반도체·車 현지화로 中 추격 따돌리고 서비스업서 활로 찾아야

—중국 소비시장의 신장이 시너지의 부양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관련기사 A01면

▶중국 소비시장—신장이 빠른 편이지만 아직까지 소비의 힘이 주춤할 전망이다. 신장이 강해지면서 시장이 열려나오기까지 아직 소비가 뜸해져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시장이 열리면 중국 소비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수 현지 전문가들이 진단한 한국기업 생존전략**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격’이 아니라 ‘혁신’으로 승부하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차이나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혁신’을 제시했다.



**차오데 설립은 가격 아닌 혁신...잡박날 SW 좋아해 한국기업이 중국저 靑靑 승부? 대만도 이미저진 학와 실비·비유·성형등 다에 부족현 서비스주인 창출을**

차오데 설립은 가격 아닌 혁신...잡박날 SW 좋아해 한국기업이 중국저 靑靑 승부? 대만도 이미저진 학와 실비·비유·성형등 다에 부족현 서비스주인 창출을

대한 기업들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는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이 아니라 ‘혁신’으로 승부하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차이나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혁신’을 제시했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전문가들의 모습이다. (사진: 매일경제)

/끝/